

gallery **simon**

## Light of Lightness

가벼움의 빛

### 노상균 개인전

일정: 2018년 05월 17일(목) - 2018년 07월 21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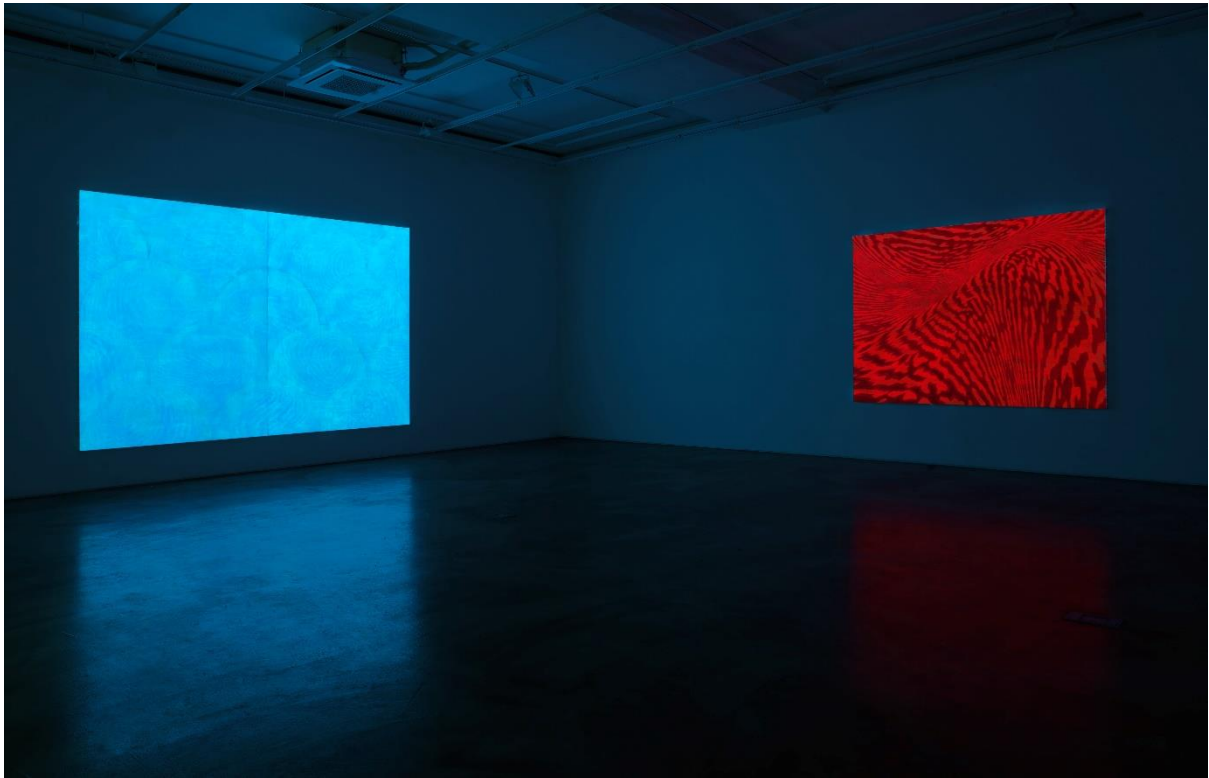
장소: 갤러리 시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6길 20)

문의: T. 549-3031, 720-3031 F. 549-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이미지 및 보도자료: webhard ID: gallerysimon PW: simon

(guest 폴더 내 Light of Lightness 폴더)



Installation view of *Light of Lightness* Gallery Simon, 2018

갤러리 시몬은 자신만의 조형적 언어를 구축해온 노상균 작가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개인전 〈Light of Lightness〉전을 2018년 5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개최합니다. 기존에 사용해오던 플라스틱 장신구인 '시퀀'에서 벗어나, '축광안료'라는 새로운 재료의 선택과 지문을 기반한 선들로 이루어진 독특한 반추상적 화면으로 평면 회화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형식, 실험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작가는 지난 7년 간의 고민과 성찰이 담긴 신작들을 선보입니다.

35-9 Tongui-Dong, Jongno-Gu, Seoul, KoreaT. 82 2 549 3031/82 2 720 3031 F. 82 2 549 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1 층과 2 층에 전시된 그의 축광안료 작품들은 1 분 간격으로 전시장의 빛이 사라질 때, 흠뻑 흡수한 빛의 에너지-입자들을 뿜어내며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인간 고유의 표식인 지문들은 화려한 색의 축광화면 위에서 굴곡진 유기적 선들로 전환되어, 생명체나 거대한 소용돌이 은하 등의 형상으로 시각적 착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선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그물들은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매혹적이고 생명력 있는 발광체임을 자랑하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촉매로서 그들과 감각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 층 전시장 정면에는 작가와 지인들의 17 개 지문들이 구의 형태로 표현된 푸른 색조의 거대한 작품 <Particles(2018)>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밝음과 어두움이 교차되는 환경 속에서 관객들은 현실과 단절된 시공의 경계에서 알 수 없는 미지의 기운에 휩싸이 듯 시공의 감각이 무더짐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둘러싼 빛의 양탄자에 온 몸을 맡긴 채 현실과 비현실, 이성과 감각의 경계를 오가는 빛의 공간 속을 유영하며, 빛과 어둠, 음과 양의 존재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감동적인 시지각적 공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3 층 전시실에서는 점정색 시퀀스로 느슨하게 몸을 감싼 부처의 좌불이 세상의 어떠한 격변에도 휘둘리지 않는 듯 정좌한 모습으로 고요한 울림을 자아냅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마지막 시퀀스작품으로서, 시퀀스와 지문의 선들이 뒤섞인 과도기적 형태의 지문드로잉, 새로운 축광안료 지문드로잉과 함께 전시되어 그의 축광작업으로의 변화를 가늠하게 합니다.

시퀀스 연작 이후 새로운 작업에 대해 오랜 기간 고심해 온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영원히 지속될 듯 견고했던 시퀀스의 표면을 가르는 균열의 배경과 탄생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예술의 아우라가 해체되고 고가의 재화로 기능하며, 자극적이고 장식적인 예술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노상균의 작품은 지극히 원초적인 감성으로 관객들의 원초적인 감각의 결을 자극하고, 꺼져버린 상상의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노상균의 이번 신작들은 오래된 껍질을 벗고 새로운 예술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관객들은 그 속에서 빛의 아우라가 자아내는 '새로운 끝'을 향한 그의 여정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노상균(1958)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뉴욕의 프랫 대학원(Pratt Institute) 회화과를 졸업했습니다. 작가는 1999 년 제 48 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2000 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등에 선정되었으며,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다수의 개인전 및 그룹전을 거치며 작가로서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왔습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휴스턴미술관 등 국내외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국제적인 평가와 더불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노상균(Noh, Sang-Kyoon)

1958

### 학력

- 1994 프랫 인스티튜트 회화전공 석사 졸업, 뉴욕, 미국  
198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졸업, 서울, 한국

### 개인전

- 2018 *Light of Lightness*, 갤러리 시몬, 서울, 한국  
2017 *In the Midst of Shiny Dust*, 우민아트센터, 청주, 한국  
2011 *Conjuring Constellations*, 브라이스 월코비츠 갤러리, 뉴욕, 미국  
*Conjuring Constellations*, 갤러리 시몬, 서울, 한국  
2007 *What Are You Looking For*, 브라이스 월코비츠 갤러리, 뉴욕, 미국  
2005 *I Love You*, 갤러리 시몬, 서울, 한국  
2004 노상균전, 브라이스 월코비츠 갤러리, 뉴욕, 미국  
2002 노상균전, 갤러리 E.S., 도쿄, 일본  
2001 *The Directions*, 갤러리 현대, 서울, 한국  
*For the Worshipers, Art Unlimited*, 갤러리 현대, 바젤, 스위스  
2000 올해의 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노상균전, 로버트 센텔슨 갤러리, 런던, 영국  
1999 노상균전, 지안 페라리 갤러리, 밀라노, 이탈리아  
1998 노상균전, 갤러리 현대, 서울, 한국  
*The Deep and the Shallow*,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1997 *Happy New Year!*, 갤러리 현대 윈도우 갤러리, 서울, 한국  
1995 노상균전, 갤러리 이콘, 서울, 한국  
1992 *Rainbow Fish*, 히긴스 홀 갤러리, 뉴욕, 미국  
1988 *The Field*, 관훈 갤러리, 서울, 한국

### 단체전

- 2018 디지털 프롬나드 : 22 세기 산책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17 내가 사는 피부, 소마 미술관, 서울, 한국  
너의 손, 나의 마음, 갤러리 시몬, 서울, 한국

- 201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70 년: 또 하나의 한국현대미술사,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한국
- 2015 조우, 북서울 미술관, 서울, 한국
- 2014 시몬의 친구들: 20 주년 기념전, 갤러리 시몬, 서울, 한국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아카이브전): 한국현대미술 비엔날레 진출사 50 년,  
 부산문화회관, 부산, 한국  
 사유로서의 형식 - 드로잉의 재발견전, 뮤지엄산, 원주, 한국  
 Retro\_86~88, 소마 미술관, 서울, 한국
- 2013 장면의 재구성 #1-SCENES VS SCENES, 북서울 미술관, 서울, 한국  
 아시아코드\_空, 소마 미술관, 서울, 한국

###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리움  
 경기도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휴스턴미술관  
 삿지  
 이화여자대학교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국회의사당  
 우민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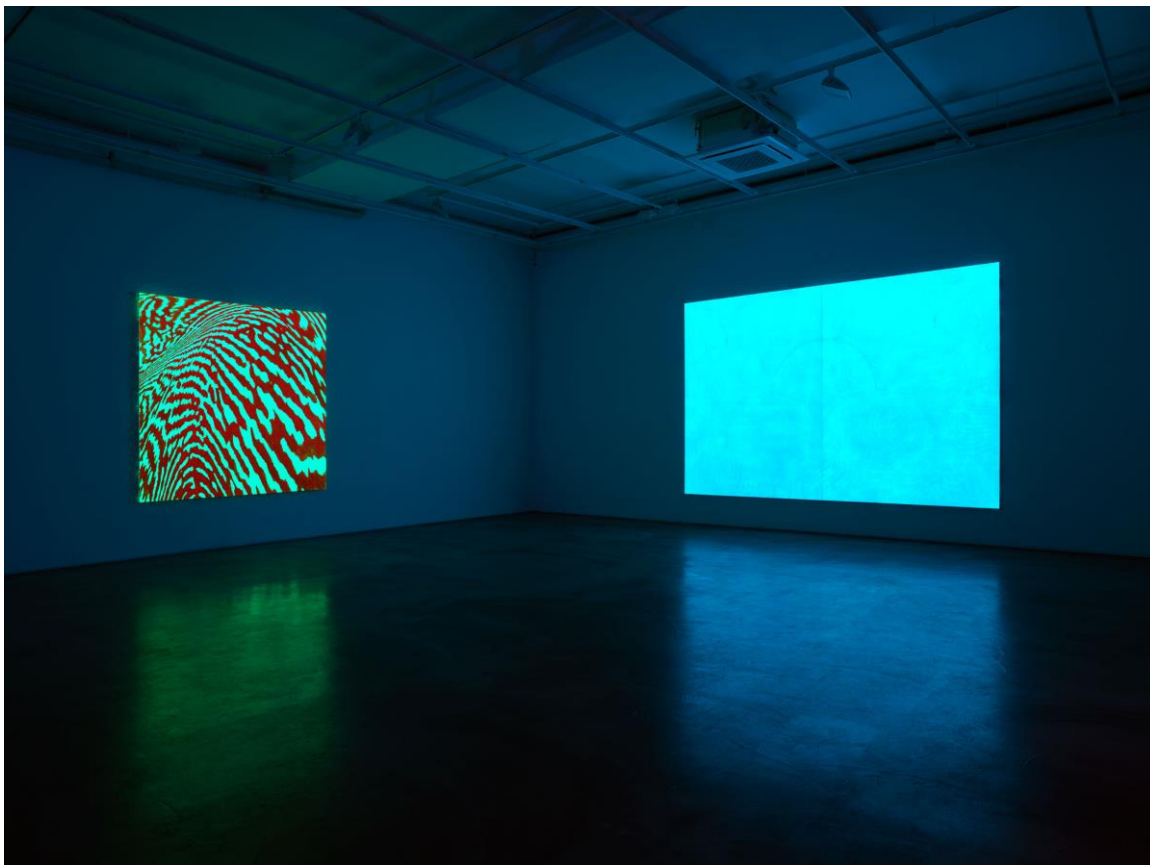
### 참고문헌

- 김홍희, "IN THE MIDST OF SHINY DUST", 〈월간미술〉 10 월호, 2017 : p. 145
- 김경아, "수행자", 개인전 카탈로그, 우민아트센터, 2017 : pp. 6-9
- 김홍희, "노상균의 올 댓 시퀀스", 〈Noh, Sang-Kyoon〉, 갤러리시몬, 2011 : pp. 14-18
- 이지운, "Constellation", 〈Noh, Sang-Kyoon〉 개인전 책, 갤러리시몬, 2011 : pp. 30-31
- 김영나, "시퀀의 미술가/마법사 노상균", 〈Noh, Sang-Kyoon〉 개인전 책, 갤러리시몬, 2011 : pp. 222-223
- 심상용, "중립적 기호체계로서 시퀀과 그 물성(物性)의 조율", 〈오늘의 미술가를 말하다〉 2 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 pp. 28-47
- 앤드류 매클, "Noh, Sang-Kyoon - Where I Work", 〈ArtAsiaPacific〉, 3/4 월호 2007 : p. 124
- 정신영, "노상균", 〈ARTFORUM〉 2 월호, 2006 : p. 227
- 하계훈, "시퀀을 통한 현실과 허구의 대비", 〈월간미술〉 11 월호, 2005 : pp. 164-167

- 심세중, "노상균", <episode : Chromatic Sensation by Hera>, Do Art, 2003 : pp. 62-73
- 진휘연, "21 세기도상, 키치와 구도의 경계에 서다", <art in culture> 10 월호, 2001 : pp. 62-63
- 김혜경, "노상균전", <월간미술> 10 월호, 2001 : p. 169
- 정유경, "상식을 뒤흔드는 거대한 동심원들", <열린세계> 5.6 월호, 2001
- 이추영, "노상균의 세계 : 소우주와 우주", 오늘의 작가전 카탈로그, 국립현대미술관, 2000 : pp. 22-44
- 김수현, "실재와 가상 사이의 환상적 세계", <월간미술> 7 월호, 2000 : pp. 92-99
- 송미숙, "노상균", 48 회 베니스 비엔날레 카탈로그, 문예진흥원, 1999
- 심상용, "평면과 시각적 환영 사이", <월간미술> 7 월호, 1998 : p. 111
- 정현이, "노상균의 무중력 궤도", 개인전 카탈로그, 금호미술관, 1998
- 송미숙, "노상균의 시퀀물고기들", <공간> 8 월호, 1996 : pp. 90-99
- 박영택, "시퀀의 일루전에 나타난 연속성과 반복성", <공간> 8 월호, 1996 : pp. 100-107
- 윤우학, "탈물질적 이미지의 증폭", <월간미술> 3 월호, 1995 : p.61
- 정영목, "반복과 집중, 그리고 개념의 조형미", 개인전 카탈로그, 갤러리이콘, 1995
- 윤우학, "흐르는 감성의 또 다른 시각적 실험", 개인전 카탈로그, 관훈미술관, 1988



Installation view of *Light of Lightness* Gallery Simo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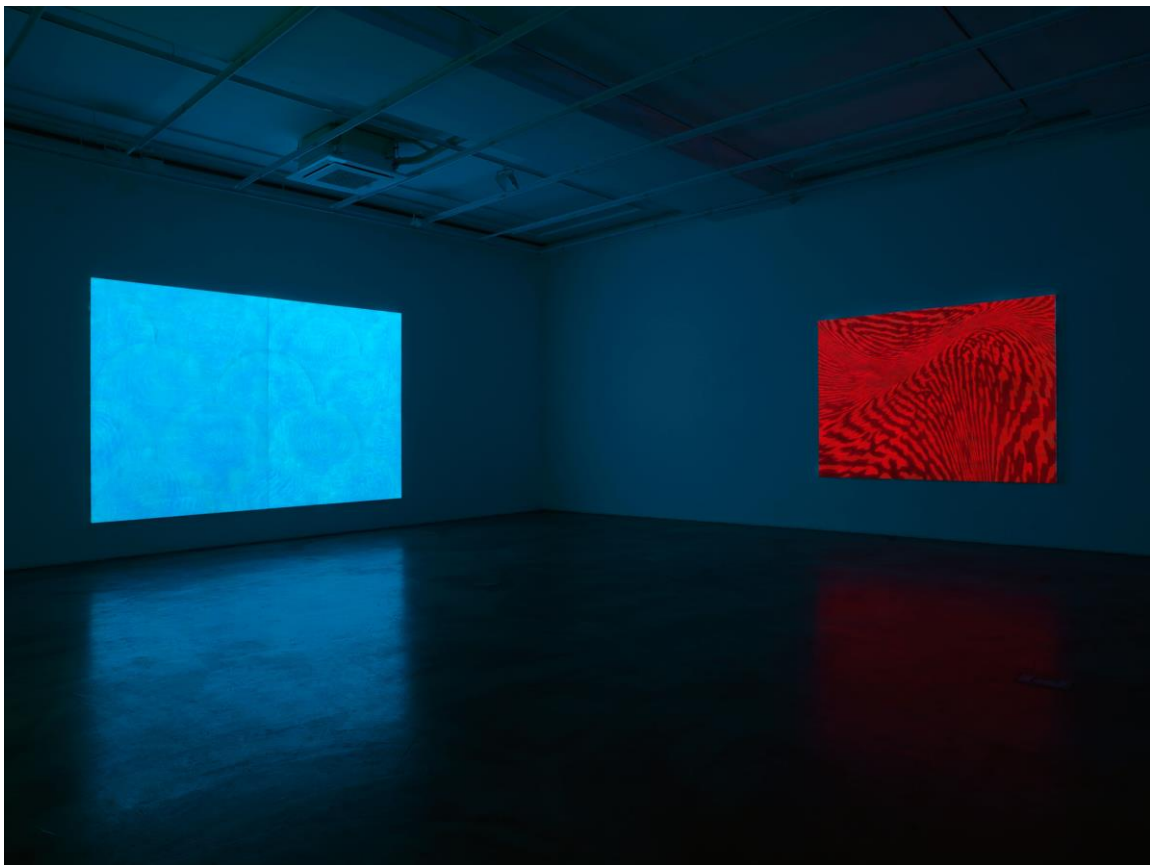


Installation view of *Light of Lightness* Gallery Simon, 2018





Installation view of *Light of Lightness* Gallery Simon, 2018



Installation view of *Light of Lightness* Gallery Simon, 2018



Installation view of *Light of Lightness* Gallery Simon, 2018



Installation view of *Light of Lightness* Gallery Simon, 2018